전북 봉축위, '꿈타는' 연등회 본격 준비

4월 4일~5월 5일 봉축행사 진행
4월 26일 전라 감영서 봉축법요식
전주 전역에 2500여 개 연등 설치
"지역 사회 유대감 강화에 주력"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전주·완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 위원장 화평 스님·진성 스님)가 불기 2569년 봉축위원회 구성과 봉축행사 계획,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월 26일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향 수현사 2층 강의실에서 열린 '불기 2569년 전북(전주·완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불기2569년 봉축위원회 구성, 봉축행사 계획안 심의, 봉축행사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봉축 행사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범 종단적으로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사람이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기뻐하는 봉축 행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전주·완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을 봉축 기간으로 정했다. 자체 슬로건인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를 주제로 다양한 봉축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봉축 기간에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시장-팔달로-버스터미널에 약 2500개의 거리 연등을 설치하고 송천동, 아중역, 팔복동에는 중앙분리대에는 약 1500개의 거리 연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주 혁신도시 수현사와 서고사 주변에도 1000개의 거리 연등을 설치하고 백제교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교량에는 600개의 LED 연등을 설치해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4월 12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에 설치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 행사가 막을 올린다. 특히 4월 26일 전라감영에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미따유스 청소년페스티벌'이 보컬, 댄스, 밴드, 국악 경연으로 확대돼 열린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시민들과 내방객을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등 문화행사 부스와 어린이대축제가 진행된다. 또 10개소의 전통 문화체험 부스를 마련해 연등 만들기, 지화 만들기, 소원번 쓰기, 관불 및 타종, 전통 등 만들기,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 연등축제는 4월 26일 오후 6시 전라감영에서 봉축법요식 봉행을 시작으로 각종 장엄불과 함께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의 주요 도로를 따라 전라감영으로 돌아오는 약 2.5km의 구간에서 열린다.

법정 스님 열반 15주기 추모…부도탑 제막

2월 23일, 송광사서 추모식
전국 불자, 청빈한 삶 다짐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불일암에서 부도탑 제막식이 거행됐다.

"무소유 탑을 세웠네. 돌로 피어난 연꽃 맑고 향기로워라. 삶에 철저해 그 전부로 사셨던 스님, 지금 여기에 계시네."

무소유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청빈한 수행자로 살았던 법정 스님의 부도탑이 조계총림 송광사 불일암에 모셔졌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2월 23일 법정 스님 열반 15주기를 맞아 추모재 및 부도탑 송광사 사자루와 불일암에서 봉행했다.

수좌 현묵 스님은 "스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법구를 남기셨다"며 "대중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다.

문도를 대표해 덕조 스님은 "문도들은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정진하고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재에 이어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불일암에서 부도탑 제막식이 거행됐다. 무자 스님은 "스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유랑하시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신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어른 스님을 기억하며 그 수행의 가풍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전 형통사, 창건주 형진 스님 3주기 추모다례

2월 22일, 영단불사도 함께
"평생 수행 · 포교 헌신" 애도



대전 형통사(주지 용담 스님)가 2월 22일 경내에서 형진 스님 3주기 추모다례 및 영단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형진 스님은 형통사의 창건주로 2006년 형통사를 창건하고, 수행과 포교에 힘쓰며 대전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형진 스님의 법맥을 잇고, 형통사 중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영단불사 점안, 영가 합동 천도재, 추모합창, 법어, '형통사의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영단불사는 기존 법당을 확장해 영구 위패를 모시는 전각을 조성한 불사로, 전각에는 극락구품도, 인로왕보살 탱화, 도자기법 지장보살 부조상 1000불, 크리스탈 영구 위패 1000위를 봉안했으며, 천장에는 티베트 불교의 딱돌다라니를 팔정도 조형물과 함께 모셨다. 전각은 전통과 현대, 한국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성림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석구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용담 스님은 "형진 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며 불교 발전에 힘썼다"며 "이번 영단불사는 형진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염원이 함께한 결과이며, 산 자와 영가 모두가 해탈하기를 서원하는 미래 불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송광사, 불교학생회 장학금으로 희망 더하다

전남대생 12명에 600만원 전달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미래 한국의 기둥이 될 대학생과 법조인의 꿈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송광사는 2월 21일 광주 증심사 대웅전에서 전남대 불교학생회(지도법사 진훤 스님)와 법학전문대학원 불교학생회(지도법사 중현 스님) 회원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송광사는 전남대 불교학생회 6명과 법학전문대학원 불교학생회 6명 등 총 12명의 재학생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광사는 올해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광사 총무국장 보일 스님은 "종교를 떠나 사회의 큰 일꾼이 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업과 인격 수양에 매진하며, 사회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김가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스님들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 학생 활동과 종교 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헌 법학전문대학원 부회장도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번뇌와 고통을 느낄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어려운 이웃에 나눔 실천

임피면 등에 1200kg 쌀 전달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 스님, 주지 보위 스님)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 1200kg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군산 성흥사는 2월 25일 임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금자)에 자비의 쌀 1000kg (10kg 100포)를 전달했다. 군산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에도 쌀 200kg을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온정을 나눴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불자로서 도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만경사, 어린이들에 간식 선물

2월 19일, 어린이집에 핫도그



무등산 만경사(주지 시공 스님)가 2월 19일 광주 광산구 해맑은어린이집을 방문 '시공 스님의 오늘은! 핫도그 DAY' 행사를 열고, 원생 80명에게 따뜻한 핫도그를 선물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자비신행회와 함께 진행됐다. 시공 스님과 만경사 신도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도그를 직접 만들어 원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전달했다.

시공 스님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UNIST에 발전기금

2월 24일, 1억 3000만원 기탁
마음과학 분야 연구 발전 위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마음과학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발전기금 1억 3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2월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본부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총무 혜자 스님과 재무 혜담 스님,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정웅규 발전기금운영단장 등이 참석했다.

혜자 스님은 "울산과학기술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춘 울산과학기술원이 마음과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보여주신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마음과학과 의식과학 연구 발전을 비롯해 첨단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전달식 이후 참석자들은 UNIST의 핵심 연구시설인 UCRF(연구지원본부)와 지관 서가를 방문해 연구 환경을 직접 살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개원 이후 20여 년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법사 대자유치원, 제98회 졸업식 개최

국화반 등 3개반 77명 졸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 2월 21일 정법사 만불보전에서 제98회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국화반 26명, 백합반 25명, 연꽃반 26명 등 77명의 어린이가 졸업했다. 대자유치원 이사장 광우 스님과 박선영 원장, 하린영 정법사 신도회장, 조경희 다도회 고문,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광우 스님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바른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어린이들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세자녀 모두 대자유치원을 졸업하는 김예준, 김예진, 전지호 가족에게 특별상이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 제7기 졸업식

2월 22일, 51명 졸업생 배출



창녕 관룡사(주지 정안 스님)가 2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룡사불교대학 제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한 51명의 졸업생을 대표해 하회천, 백성자 불자가 정안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신도품계증을 받았다.

관룡사 불교대학장 정안 스님은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졸업은 더 큰 보람의 시작이다. 지난 7기 졸업식이 있기까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8기 불교대학의 입학식은 3월 8일에 예정되어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도사지-괴태곶봉수대 복원 토론회 열려

2월 22일 수도사서 토론회 개최



괴태곶봉수대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적문 스님)와 금요포럼(대표 김훈)은 2월 22일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 경내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괴태곶봉수대와 수도사지의 발굴과 복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괴태곶봉수대와 수도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문 스님은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수도사지 발굴·복원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향덕 스님 "한국·에디오피아 협력 강조"

투자포럼서 양국의 상생 기대



울산 천만사 향덕 스님〈사진〉이 2월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에디오피아 투자포럼에서 한국과 에디오피아의 경제 협력과 상생을 기원했다. 향덕 스님은 UN NGO 세계평화대사와 한국·에티오피아 문화경제교류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다.

향덕 스님은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을 통해 깊은 인연을 맺은 나라이다"라며 "에티오피아는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재를 보유한 국가로 이는 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